

# “사찰경영 CMS제도 도입을”

〈자금관리서비스〉

사찰재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성관·효립) 산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사찰경영의 첫 종책으로 ‘자금관리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도입’을 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CMS는 정기적 지출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본정보를 제공해 지출하는 결제서비스다. 실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가섭 스님은 “CMS 제도는 사찰재정을 예측

## 실천불교승가회 첫 종책 제안 ‘재정 투명성 확보 기여’ 기대

가능하게 해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사찰 재정의 50% 내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사찰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CMS 제도는 실천불

교승가회 소속회원 사찰 일부에서 이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용인의 종은절과 수미산불교사, 부산 미타선원 등에서 사찰CM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CMS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호 실천불교승가회 사무국장은 “CMS 제도는 소규모 사찰의 경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종단차원에서 CMS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천불교승가회는 내달부터 회원 소속사찰을 중심으로 CMS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필 기자



조계종 원우회가 2월 21일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생명 나누는 헌혈 팔 걷어요”

조계종 원우회·신도 등 150여명 동참

조계종 종무원 조함 원우회(회장 장영욱)가 ‘헌혈’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원우회는 2월 21일 하루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함께 ‘헌혈로 실천하는 생명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원우회의 이날 행사는 뜻 깊은 행

사를 펼침으로써 동안거를 원만하게 회향하고 원우회 활동을 앞으로 봉사·나눔에까지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류창화(조계종 교육원 교육팀·29세)는 “요즘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처방을 받기 힘들다”면서 “이런 행사를 통

해 헌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우회 회원뿐만 아니라 종무원 부·국장스님, 조계사 종무원, 신도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해 생명나눔의 의미가 더해졌다. 한편 원우회는 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 증서를 모두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증,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템플스테이 부스 설치

여행박람회를 통해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리는 ‘200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린다. 올해로 5회를 맞는 ‘내나라여행박람회’는 ‘구석구석 놀라운 우리나라’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해 열린 4회 박람회에 설치된 템플스테이 부스에는 1만9000여 명의 참가객이 찾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0여 곳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인포메이션 센터’를 운영하며 참가객들에게 지도형 리플릿과 전권 70여 사찰의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 동국대, 로스쿨 관련 법적조치

제1차 회의부터 파행운영 됐던 로스쿨 대책위와는 별도로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본격 법적조치에 나섰다. 동국대 방희선 학장(법과대) 등은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2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예비인가가 부처부처소 청구소송 및 행정처분취소 징지신청을 제출했다. 방희선 학장은 “시위 등 자극적인 활동은 지양하고 이제는 합리적으로 나설 때다. 이번 소송은 제출된 동국대 로스쿨 선정에 관한 법적·사회적 조치가 일관”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올 예산 35억여원...전년비 14% ↓

### 중앙승가대 제77차 이사회 개최

2008년 중앙승가대의 설립규모가 34억 84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학교법인 중앙승가대학교(이사장 지관)는 2월 19일 열린 제77차 이사회에서 2008학년도 법인 및 대학 자금운영예산 심의의결안을 결의했다. 올해 설립규모 35억여원은 지난해 학교수입 35억 5300만원보다 1.95%, 금액으로는 6900만원 감소된 것이다. 법인 운영예산도 22억 5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5억 7700만원에서 13.82% 줄어든 것은 작년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3억500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이다. 함께 상정된 안건은 ▲법인 및 대학 자금 운영예산 심의 ▲정관변경 ▲교원승진 임용 등 4건이었다. 정관변경과 관련해 현재의 당원직 이사 조항을 유지하되, 종단 2인 추천, 이사장 2인 추천, 대학 1인 추천으로 5명의 개방이사추천위를 통해 4명의 개방이사를 두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외에 지난해 11월 20일 출범된 후원회의 운영과 승가대의 미래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재단이사인 정범 스님(월정사 주지)이 올해 후원금 모연 예상액을 묻자, 월우 스님(종무처장)이 “수입예상은 3억원정도 된다. 인건비 9000만원을 제외하고 순수입 2억원을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범 스님은 “미래지향적 승가교육을 위해 예산규모가 더 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숙사 및 도서관 설립, 연구기능 활성화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강조하며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학교의 장기적 전망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범 스님(승가대 학장)은 “개운사 시절 개운사에서 기숙사 및 공양을 해결했다. 김포학사 이전 후 기숙사 유지비 등 부담이 크다. 현재도 매년 1억 이상 개운사에서 후원금이 들어오지만 학교 설립규모를 늘려 시설투자를 확대할 방법은 후원 등 기부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낙산사서 ‘승례문 49재’ 연다

### 3월 29일 영상물 등 전시

2월 11일 전소된 국보 제1호 승례문의 넋을 기리는 49재가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예정이다. 화제가 되고 있다. 낙산사 주지 정범 스님은 “낙산사와 양양군은 승례문 전소 49일째인 3월 29일 낙산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인해 희생된 승례문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지내기로 결정했다”며 “3년전 낙산사도 같은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어 우리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경희대 관광대학 원경모 교수가 낙산사 주지 정범 스님과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제안해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제에서는 승례문과 낙산사 등의 문화재 소실 후 남은 재(材)와 관련 영상물 등도 전시된다. 김주필 기자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13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재단 창립 13주년 기념법회 및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계 사회복지실천가들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상호교류를 나누고 불교사회복지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강진 기자

##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 봉암사 수좌스님들 성명서

‘수많은 생명체의 터전을 허물고 국토의 근간을 훼손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막아야 한다.’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선방 수좌스님들이 2월 18일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봉암사 스님들은 “해탈과 생명, 민주주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운하 건설을 반대한다”며 “불제자로

서 지켜야 할 으뜸은 ‘불살생’인데 대운하 계획은 대량 살상 계획과 다르지 않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봉암사 스님들은 “인류 역사상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추창하고 실천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대운하 건설 계획을 보도하면 점차 민주성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운하 건설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필 기자

## ‘여성불자 108인 선정’ 불교여성개발원 기념식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사회에서 공헌하는 불자여성들을 독려하고 여성불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0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가졌다. ‘여성불자 108인 선정’은 불교여성개발원이 200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반 여성에 더 귀감이 될 만한 여성불자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여성불자 전문인력 저변 확대는 물론 여성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3차 여성불자에는 불자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선우유녀, 전원주씨 등도 포함됐다. 김강진 기자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적)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매주정:주성력]

## 불기 2552학년도 해인사승가대학 신입생 입학 안내

해인사승가대학으로 오십시오. 신심과 원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탐구와 수행의 길을 밝게 열어드립니다. 시대에 능동적인 참 수행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2551(2007)년 1학기에 학제와 교과를 일신하였습니다. 경,음,론 삼장을 교과목에 균형있게 안배하였고, 한문 경전의 강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교육에다 불교 주요 사상을 현대감각으로 논리를 갖추 이해하고자 하는 현대교과를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연기, 공, 무아가 전통과 현대 속에서 소통되고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에는 도반이 있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에는 선배가 있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에는 스승이 있습니다. 해인사승가대학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학 년	1 학 기	2 학 기
1	문학연습 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약본 치문 강독, 한문기초, 불전한어 초기불교, 아비달마, 인도불교사 1	문학연습 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약본 치문 강독, 한문기초, 불전한어 한국불교문헌강독, 율장개론, 동양철학의 이해
2	문학연습 I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화엄경(화엄경 개요), 인도불교사 2, 서양철학의 이해 1	문학연습 IV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반야부(금강경, 유마경, 팔천송반야경, 반야심경) 종관사상, 중국불교사
3	문학연습 III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신론, 능엄경, 한국불교사, 서양철학의 이해 1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열반경, 법화경, 유식사상과 여러장사상, 불교문화, 불전의식
4	육조단경, 돈오입도요론, 서장, 선원제전집도서, 선오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1과목 이상 수강 선종사, 졸업논문 I	종단의 이해 졸업논문 II

- 모집인원 1학년 00명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 1부
- 자기소개서(자필) ..... 1부
-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종무원 발급) ..... 2부
- 주민등록등본 ..... 2부
- 건강진단서(행차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 제외) ..... 2부
-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 은사스님 인적사항(법명, 속명(한글,한자),당호,주민등록번호,승적번호)

- 준비물 사진(3×4 만의가사 복장) 8매
-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장삼,발우,필기도구,도장(법명)
- 주민등록 주소 이전·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 전형일자 서류접수마감: 불기 2552년 3월 27일(음력 2월 20일) 목요일
- 필기시험: 불기 2552년 3월 29일(음력 2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 시험과목: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 면접시험: 불기 2552년 3월 29일 오후 2시
- 합격자발표: 불기 2552년 3월 29일 오후 6시
- 입방일: 불기 2552년 3월 30일

문의처 ☎ 055)934-3081, 3043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승가대학

해인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해인사 주지 연암 현웅·학장 백강 법진